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9일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 37기 출범 발대식을 (쭈팔도 나주공장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한 단계 UP

농식품부 - aT, '테이스트-K'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9일 우리 농식품의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해 재한외국인과 광주전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 37기 출범 발대식을 (쭈팔도 나주공장에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서포터즈 'Taste-K'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과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폴란드 의 20여개 시장

다변화 대상국가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웨프 등 한국농식품에 애정이 많은 주한외국인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서포터즈들의 역할은 다양한 SNS 콘텐츠를 통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비롯하여, 훗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경험했던 친근함과 에피소드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K-FOOD 소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실음료를 취급하던 업체는 "중소식

품기업이 국내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맛과 제품을 테스트하기 쉽지 않다"며, "행사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포터즈팀은 외국어번역, 컨설팅, 아이디어 기획 등 수출업체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수출업체들은 글로벌 서포터즈를 통해 확인한 해외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을 미리 제품에 반영, 구체적인 실제 상품개발과 목표시장 전략수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신현곤 수출이사는 "글로벌 서포터즈들이 한국 농식품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aT는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추구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을지태극연습 '무장강도 대응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중인 2019 을지태극연습 간 무장강도 대응훈련을 전북은행 혁신도시지점에서 실시했다.

훈련은 총기를 휴대한 무장강도 침입상황을 고려해 덕진경찰서 및 혁신파출소, 무인 경비업체(에스원)와 합동으로 훈련을 했다. 또한, 무장 강도 침입 시 고객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응요령 및 무장강도 침입상황 직후 경찰 신고 등 직원 행동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김천기 안전관리실장은 "2019년 을

지태극연습을 맞아 고객안전 및 대응 절차 요령숙달을 중점으로 한 자체 무장강도 대응훈련을 함으로써 실제상황 발생 시, 경찰 및 무인경비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당행 방문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에 훈련중점을 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대응 및 위기관리 전이전환절차 훈련 등을 위해 전 기관 및 중점관리업체가 진행되는 훈련으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부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군산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성화 염원 담아 신축 이전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염원을 담아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됐다.

30일 군산상회의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4월까지 사용하던 조촌동 소재 사무를 매각하고 2018년 4월 7층 규모의 신사옥 건축을 착공해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군산상공회의소는 1916년 2월 군산상업회의소로 발족한 이래 한 세기 역사를 마

고하고 바야흐로 오늘 미래 100년의 상공업 발전과 전북경제의 수도 군산의 위상을 상징하는 장미동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가 감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많은 노력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발매가 군산경제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심장병 예방부터 다이어트 효과까지!

전북농협, 양파제값받기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019년산 양파가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육 상황 호조에 따른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량은 줄이고 소비는 늘려 양파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양파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에서 수급안정 대책을 내

놨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풍작에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중앙회·주산지농협 협력사업으로 시장격리(전북4천톤)를 추가하고 조기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만 등 해외주력 소비시장으로 5,600톤 이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범농협 소비확대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북도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축협,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범농협 임직원들이 1인 2망 소비 및 양파즙 먹이 운동에 동참하며, 전국 계통관매장(소매,식자재)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특판행사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양파의 건강기능성을 알리고 양파소주 레시피(조제법)공유 등 소비 확대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양파가격이 평년대비 가격약세

(25%↓)로 생산원가를 감안한 가격저지 대책과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한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범농협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며, "이를 통해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될 경우 전국적으로 2,500억원 정도의 농가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양파 출하 전 시장격리로 6,000톤(전국)을 추진했고 추가대책으로 18,000톤(시장격리 12,000톤, 정부수매 6,000톤)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코레일, 출·퇴근 이용편의 위한 'N카드' 출시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권혁진)는 기존 정기권 이용고객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정기승차권처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N카드(모바일 할인카드)를 선보였다.

KTX N카드는 본인인 지정한 이용구간 운임의 5%를 내고 N카드를 선

구입할 후 필요할 때마다 열차승차권을 할인받아 구입하고 할인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좌석승차권 뿐만 아니라 입석이나 자유석도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N카드로 좌석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열차별 이용객수에 따라 기본 15%에서 최대 40%까지 할인되며, 입석을

구입할 경우 기본할인 가격(좌석운임의 15%에서 추가 15%가 할인된다. 또, 자유석 승차권은 기본할인에서 50%까지 추가 할인된다.

N카드 외에도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일 사용' 옵션 선택이 가능한 기간자유형 정기권은 기존 정기승차권의 약점을 보완했다. 기간자유형 정기권의 할인율은 10~20일은

45%, 20일 초과는 50% 할인되며, 청소년은 10일~1개월 60% 할인된다.

코레일 권혁진 전북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N카드와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을 출시했다"며 "다양한 열차 할인혜택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고 편안한 출퇴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원영 기자

고창갯벌천일염,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리농협 자체브랜드 '천만금' 미국 시애틀에 전격 수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지난 28일 미국 시애틀로 해리농협의 자체브랜드인 '천만금'의 탈수천일염 5ton을 수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갯벌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며, 탐사르습지로 등록된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청정 갯벌염전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소금으로, 천연미네랄 함량이 높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한 소금이다.

고창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은 2015년 취임 이후 해리농협의 독자 브랜드인 '천만금(天萬金)'의 판로 개척과 판매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금 품목 최초 HACCP인증, 전북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유통활성화와 미국 시애틀 해의 수출로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천일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미국으로의 천일염 수출을 통해 고창 해리농협 천만금 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럽 등 세계시장을 목표로 최고 품질의 소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창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천일염 관련 정책미련과 행정지원이 이뤄져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천일염 산업의 큰 걸림돌로 떠오르는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을 계기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청정갯벌 천일염이 전 세계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고창군의 농생명문화 확산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